

▶ 독립국악원 무용단 순회공연 '왕의 순행'

# 궁중 무용의 '멋' 과 '아름다움' 느껴보자

내일 고창문화의전당서 공연  
연향의 꽃 '궁중정재' 부터  
관아 밖 백성축제까지 선배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무용단의 '왕의 순행'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왕의 순행'은 전통춤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조선왕조의 분향인 전주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무대는 궁중 무용의 아름다움과 멋을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선보이고자 마련된 순회공연.

공연은 연향의 꽃인 궁중정재의 향연으로 펼쳐진다. 지역 문화재이자 조선 태조의 건국이념에 부합되게 창제한 당악 정재양식의 춤 '금척무'를 시작으로 궁중 나례나 중요 연례에 차용된 가면을 쓰고 추던 '처용무', 승전과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궁중검무', 당악정재에 속하는 춤으로 두 틀의 포구문을 놓고 채구를 던져 승부를 가리는 춤인 '포구락'과 나라의 태평성대과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를 펼쳐 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연향이 끝이 나고 관아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왕의 순행'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밖 마을에서는 백성들의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는 '비꾸아, 놀자!'는 타악의 다양한 가락에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춤. 토속적인 놀이성의 움직임과 벼슬새가 일품이다.

작품은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장면의 수정·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박희태 교수(우석대학교 체육과학대학 실용무용

지도학과)는 궁중 무용연출을, 김수현 무용단장은 안무구성·지도를 맡았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한다. /정해은 기자

## “전북의 명주, 완주서 확인하세요”

### 솔테마박물관 '명주의 고장' 기획전

완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전북의 술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명주의 고장, 전북' 기획전을 연다.

지난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은 총 여섯 마당에 걸쳐 전북의 술 이야기를 풀어낸다.

첫째 마당은 일제강점기 우리 술 발달과 주세 수탈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익산군 주조면허증', '정읍세무서 주세납세보증서'를 통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본다.

둘째 마당은 개항과 함께 성장한 군산의 청주산업과 전북의 소주였던 익산 '보배'를 조명하고 셋째,넷째 마당에서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건배주였던 '이강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정봉준이 마셨던 '죽력고', 진북대사의 '송화백일주' 등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전북의 명주가 펼쳐진다.

다섯째 마당은 '우리 술 품평회'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도내 술들을 전라북도 지도 위에 지역별로 연출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여섯째 마당은 1970



년대 완주, 전주지역 19개 주조장 시설 사진들을 모아 대형 모자이크로 구현했다.

박물관에서는 기획전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우리 술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북의 대표 술인 이강주, 송화백일주를 비롯해 다섯째 마당에서 소개된 수상 주류들을 맛볼 수 있도록 시음주를 별도 마련한다.

김재열 완주군 관광체육과장은 "전북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완주군 대한민국의술테마박물관에서 넘겨받은 전북의 술 문화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영화 '사월의 끝', 부천영화제 기간 중 3회 걸쳐 상영



(사)전주영상위원회는 2015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선정작 '사월의 끝(감독 김광복 감독)'이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코리아 판타스틱-장편경쟁' 부문 공식 초청 및 9월 개봉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13~23일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 중 3회에 걸쳐 상영되는 '사월의 끝'은 김광복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각박한 현실에 대한 불안을 미스터리 스타일러 장르로 풀어냈다.

영화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사람들과 살인사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세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공개

된 티저 포스터에는 낡은 아파트로 이사 온 주인공 '현진'(박지수의 모습이 담겨 있다. 네 이웃 모두를 의심하라'라는 카피 또한 이 영화의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감지 할 수 있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지역영화감독 및 지역콘텐츠 발굴을 위해 영화 '사월의 끝'과 같이 매년 장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단순 제작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결합한 지역소재의 영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전북 문화콘텐츠융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 영상위는 지역의 우수한 연극콘텐츠를 장편영화로 제작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김성준 감독의 '천사는 바이러스'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노송동 천사를 주제로 한 영화는 올해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극단 가치동이 2015년도에 초연한 '수상한 편의점(극작 최기우)'도 영화로 각색되어 11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혼불문학상 수상작

## 권정현 작가의 '붉은 혀'

소설가 권정현(48)씨의 '붉은 혀'가 제7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으로 결정된 '붉은 혀'는 일제 패망 직전의 만주를 배경으로 일본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는 중국인 요리사와 군 위안부 출신 조선 여성의 파란만장한 삶을 요리라는 소재와 함께 표현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문순태, 이경자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 김양호 송의대 교수, 류보선 군산대 교수, 이병천 문학평론가, 사단법인 혼불문학 이사장은 " '붉은 혀'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소설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작'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문장뿐 아니라 소재, 구성 등 소설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나무랄 데 없이 뛰어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제시대의 만주 정세는 물론 모든 등장 인물들이 날것으로 묘사된 생생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작가의 필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평했다.

권정현 작가는 충북 청주 출생으로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2년 충청일보 신춘문예(단편소설 '낮이 있는 풍경')와 조선일보 신춘문예(단편소설 '수')로 등단했다. 단편 '골목에 대한 어떤 오마주'로 제8회 현진건 문학상을 수상했다.

혼불문학상은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문학혼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대상 상금은 5천만 원이며, 수상작의 단행본은 9월말 출간된다. 혼불예술제를 겸한 시상식은 10월 12일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반 독자의 참여 요청에 부응하고 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혼불의 메아리'가 올 가을부터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장수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 성료

장수문화원, 무안군, 포항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가 지난 13일 저녁 7시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연주회는 3개 거점기관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100여명의 단원들과 강사들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 단원들에게는 꿈이 아닌 현실의 무대로, 공연장을 찾은 200여명의 내빈 및 학부모 등 관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동서회합의 하모니를 선사했다는 호평이다.

이번 합동 연주회는 장수문화원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2017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협력기회 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무안군, 포항문화재단과 함께 한 연합캠프 및 합동 연주회인 '산으로의 초대'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문의전화 : 063) 453-0854 / 010-6710-0854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